

해외 입양: 미혼모자 복지 체계 형성의 걸림돌

-입양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대한 꿈-

김도현 목사(뿌리의 집)

1. 들어가는 말

무엇보다도 먼저 본인에게 국가기관으로서 높은 명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초청을 받아 가족복지 분야에서 탁월한 학자와 전문가 여러분 앞에서 소견을 피력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회를 허락하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 관계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1993년 6월 무렵, 스위스 바젤 땅에 살고 있는 한국계 입양여성 지윤 엔겔¹⁾(23세)이 ‘나는 생모를 만나기 위해 이 길을 갑니다.’ 라는 한 줄짜리 메모를 남긴 채, 라인강에 몸을 던졌다. 당시, 스위스개혁신교회연맹에서 한국담당 목사로 일하고 있던 나는 지윤 엔겔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다. 지윤 엔겔의 죽음 이후, 스위스 입양인 자조단체 ‘동아리스위스’의 조직과 활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고, 스위스 한국계 입양인들과의 우정 안에서 많은 기쁨과 슬픔의 시간을 보냈다. 9년 동안의 한국담당 목사의 임기를 마친 후, 영국 버밍엄대학 선교신학부에서 입양에 관련한 신학 논문²⁾ 작업을 했다. 2004년 한국으로 돌아와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 집’³⁾ 운영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지난 4년 반 동안 ‘뿌리의 집’은 모국 방문 입양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운영과 함께 입양인들의 목소리를 한국사회에 전달하는 통로로서 기능하기 위해 입양인 미술 작품 전시회·입양인 연주가 콘서트·입양인 사진작가 전시회·입양인 시인 시낭송회·입양인 저자 저작물 번역 출판⁴⁾·생모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1) 지윤 엔겔(Ji Yuhn Engel)은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기 두어 해 전, 스위스에 살고 있는 다른 입양인들과의 공저 *Adoptiert-Lebensgeschichten ohne Anfang*. (1991) Bern. Cosmos Verlag을 남겼고 스위스국영방송과도 자신의 입양에 관련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2) *A preliminary theological exploration on the matter of intercultural adoption and Korean birth mothers*. (July 2005) Department of Theology, Historical Studies,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미간행 MPhil 논문.

3) ‘뿌리의 집’은 영문으로 KoRoot로 표기하며 해외입양인들에게는 KoRoot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03년 7월에 개원했고, 김길자·서경석·장만순 등이 공동대표이며 서울시 국제협력과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2004년 5월부터 필자가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⁵⁾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해외 입양 55년’의 어두운 그늘을 청산하고자 하는 일에 일조하고자 하며, 나아가 입양의 출발점이랄 수 있는 ‘가족해체’가 없는 사회, 그래서 입양 보내져야 할 아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입양’의 덕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선전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회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아직도 지윤 앵겔로 하여금 죽음을 결단하게 했던 아픔과 곤경에 대해서 참으로 알지 못하며 올바르게 응답하기 위해 미미하고 저급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다.

2. 국제 입양(해외 입양)이 작동하는 메카니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For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라는 슬로건 뒤에 감추어진 진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시작된 아동의 국제 입양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이 국제 입양은 실상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서구 세계에로의 아동의 일방적 이동이다.⁶⁾ 이 국제 입양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For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라는 일견 매우 합당하고 도덕성이 풍부해 보이는 주창 하에 실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슬로건(slogan)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가면일 뿐 진실은 아니다. 국제 입양은 모더니즘과 휴머니즘으로 무장된 서구 사회의 욕망과 가난한 나라들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열한 의지의 공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1) 서구 사회의 욕망

국제 입양에 모더니즘과 휴머니즘으로 무장된 서구 사회의 욕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일은 일견 매우 가혹하게 보인다. 그러나 서구의 입양 산업은 ‘어떤 아동이든지 아동은 가족 내부에서 혹은 자기가 출현한 사회의 내부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자명한 관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권리를 인정하는 순간 국제 입양 산업은 사업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서 아동

4) 2008년 8월 15일 스웨덴의 저명한 입양인 학자 Tobias Huebinette(한국명 이삼돌)박사의 저서 ‘Comforting an Orphaned Nation’을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소나무 출판사, 뿌리의 집 번역) 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5) 입양인 감독 Tammy Chu(한국명 추동수)에게 의뢰하여 제작 중이며, 타이틀은 ‘회복(Resilience)’이며 2009년도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부문 상영작으로 선정되었다.

6)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자국의 흑인 아동들을 캐나다나 영국으로 입양을 보내고 있다.

이 출현한 가족과 사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하고 동시에 자국 내의 ‘입양을 욕망하는 가족들’의 욕구를 외면함과 함께 그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물질 토대의 상실에 직면해야 한다.⁷⁾

서구의 국제 입양 산업은 ‘입양을 욕망하는 가족들’의 물질 토대 위에서 구축된 산업이다.⁸⁾ 사람은 가치를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내어 놓는다. 그렇다면 ‘입양을 욕망하는 가족들’을 어떤 가치들을 구매하는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서구적 휴머니즘의 실천, 다문화주의의 욕망, 서구 여성주의의 욕망들이 그것이다.⁹⁾

(1)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 불임의 상황이 입양을 고려하는 가장 대중적이고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불임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비추어 볼 때, 상실(loss)의 경험이며, 사람들은 이 상실을 회복하여 정상 가족에 진입하고자 한다. 입양을 통해 권력과 재산을 상속하는 일은 인류사의 오랜 관행이었고, 오늘날에도 불임의 상황이 야기한 상실을 회복하는 한 한 방편으로서 입양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일이다.¹⁰⁾ 불임의 가정이 겪는 사회적 소외

7) 2001년 필자가 스위스의 대표적 국제 입양 기관 ‘terre des homme’의 한국아동 사후관리 책임자인 직원을 만나 대화를 나눈 일이 있다. 대화의 요지는 이런 것이었다. 필자의 질문의 요지는 “스위스의 이 입양 기관은 로잔에 본부가 있고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어까지 지부를 두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큰 입양 기관의 하나이다. 이 기관의 스위스 바젤지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국제 입양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아동을 친가족과 자기사회로부터 결별시키고 문화와 인종이 다른 사회로 데리고 와서 인종차별주의 사회 내부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아동이 출현한 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를 계발시키는 일에 협력하는 사업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냐?” 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대답은 “바젤지부는 본부의 사업전환을 촉구했으나 거절을 당했고 결국 바젤지부는 ‘terre des homme’으로부터 독립했다. 본부의 응답은 이런 것이었다. 바젤지부의 주장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럽에서 입양 산업을 중단하면, 유럽 사회 내부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동을 입양하려는 욕망’이 너무 커서 어린이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입양 산업은 어린이 암시장의 출현을 억제하는 사회적으로 검증되고 공인되며 적절하게 통제력을 발휘하는 차선의 사회적 체계일 뿐이다”라는 것이었다.

8) 미국의 경우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부담하는 금액은 대체로 3만 달러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미국 내의 입양 산업의 운영에 사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입양 아동 공급 국가의 입양 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외동포재단이 발행한 국외 입양인 백서(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2006) pp.171-211에 의하면 국제입양기관들의 비용에 관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p.164에는 Holt 아동복지회가 제공한 국내 소요 비용 명세표를 볼 수 있다.

9) 필자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서구 휴머니즘, 다문화주의, 여성주의에 대해서 매우 거칠고 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아마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개인적으로 소위 정상 가족의 일원이며, 대학교육과 대학교육을 통해서 서구 휴머니즘의 혜택을 깊이 받은 사람이며 그래서 서구 휴머니즘의 소중한 유산인 이성과 합리,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나아가 스위스에서 9년 동안 목사로서 일하는 동안 스위스의 고등인문학교(Gymnasium)에서 다문화주의의 전도사로서 그들로 하여금 유럽중심주의의 시각을 뛰어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문화와 삶에 대한 각성을 견인하고자 했다. 뿐 아니라, 여성주의를 공부하고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입양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식의 지평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대적인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자기 성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임을 말해 두고 싶다.

10) 미국의 목회신학자 Jeanne Stevenson-Moessener는 ‘The Spirit of Adoption’(2003, Westminster John Knox Press)이라는 저서를 내어 놓았는데, 불임 가족의 회복을 돕기 위한 사려 깊은 신학적 목회적 성찰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저서에는 한국에서 입양 된 아이도 대표적인 한 예로서 거론되고 있다.

는 따뜻하게 이해되어야 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 비난받아서 안 된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입양부모의 욕망이 입양아동의 필요보다 우선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빈도로 숨어있다. 동시에 이 일은 한 가족이 해체를 통하여 비정상화되는 일에 기초해서 정상 가족을 형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가족 해체의 상실(loss)과 아픔과 비극에 기초해서 정상 가족 형성하는 상실의 회복과 기쁨과 의미를 누리는 일이다.¹¹⁾

(2) 서구적 휴머니즘의 실천 : 단순히 불임만이 입양의 동기는 아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한 서구 가정들 중에는 각성된 삶의 방식의 하나로써 가난한 나라의 아동을 입양해서 가족의 성원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자기 친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선택한다. 이들은, 인류애에 기초한 세계시민 의식, 가난한 나라에 대한 연대,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건강권, 교육권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 기초해서 입양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과 의식의 배후에는 서구 근대가 하나의 표준이라고 여기는 서구 우월주의 혹은 유럽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후진성과 미개발에 처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의 아동들을 입양해서 건강권과 교육권과 문명화된 지식을 제공하는 일은 인류애에 기초한 높은 덕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이 일들은 대체로 유럽과 미국의 중상층 사회의 실천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보수적 색채를 지니는 일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의 기초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유산임을 알지 못하며, 지구촌의 남쪽과 북쪽,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력의 차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높은 덕-입양-을 실천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자신들의 높은 덕으로 인한 자긍심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 이들은 대체로 서구 세계의 구원자 환상(saviour fantasy)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¹²⁾ 더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서구로 입양될수록 지구촌의 삶이 더 좋은 삶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다.¹³⁾ 이런 가정으로 입양되는 아동들은 가족의 일원이 되는 동시에 열등성을 내재화하거나 자기의 근원에 대한 배척과 부인 나아가 출생국에 대한 우

11) 이 점에 대해서는 덴마크 입양인 한분영(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이 그녀의 미발표 논문에서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12) Tobias Huebinette, *Comforting an Orphaned Nation* (2005) Stockholm, Stockholm University Department of Oriental Languages. p. 28 / 참고로 이 책은 한국의 지문당에서 같은 제목의 영문본으로 출판되었으며, 2008년 뿌리의 집이 번역하여 '해의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라는 제목으로 소나무출판사를 통해 출판했다.

13) 필자가 이런 관점을 표명하는 것은 서구 사회의 입양 부모의 선의를 훼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국제 입양의 제도가 지니고 있는 근원적 성격을 드러내고 제도의 본질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의 선의들을 미시적 관점을 적용하여 긍정하는 것이 휴머니즘에 합한 일일 것이며 제도적 차원의 문제는 거시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비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월감이라고 하는 매우 복잡적이고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 일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3) 다문화주의의 욕망 : 유럽의 근대는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주의의 내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서 다문화주의가 출현했고, 각성된 다문화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각성의 표지로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아동들을 입양해서 가족의 구성원을 삼았다. 이 일들은 대체로 중산층 혹은 서민 사회에 해당하는 일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좌파운동가들의 개인적인 삶과 일정 정도 연결되는 일이었다.¹⁴⁾ 이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들이 진정한 연대를 표명해야 할 지구촌 반대편의 ‘가난한 나라들의 가난한 가정들이 지닌 헤어지지 않은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는 열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4) 서구 여성주의의 욕망 : 서구 여성주의의 만개는 국제 입양의 지평에까지 미쳤다. 서구의 여성주의자들은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가정을 형성할 수 있음을 증명해보이고 싶어 했다. 이들 중의 일부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입양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¹⁵⁾ 이들에게서는 자기가 입양한 아이의 생모가 자신이 연대하고 함께 지구촌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여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각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지구 반대편의 여성이 가부장제 체제 아래에서 고통하며 자기가 낳은 아이를 놓아 보낸 트라우마에 일생을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¹⁶⁾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2) 한국 사회의 공모

한 손바닥만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다. 국제 입양은 가난한 나라들의 공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사회의 내부적 가치

14) 이런 삶을 드러내어 주는 입양인들의 이론적인 성찰과 개인적인 고백을 담은 저서들은 많이 나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Jane Jeong Trenka를 비롯 한국계 입양인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Outsiders Within (2006/ Cambridge/MA in USA. South End Press)을 들 수 있다.

15) 이 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물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필자가 ‘뿌리의 집’에서 만나는 스웨덴으로부터 온 한국계 입양인들로부터 종종 듣는 일이다. 이 진보주의적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여성들은 특히 중국계 여아들을 입양한 경우가 많고 중국계 입양 여아가 종종 그들의 삶을 드러내어 주는 아이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16)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 중의 하나가 애란원 원장 한상순이 서문을 쓰고 캐나다의 어느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Sara Dorow박사가 편찬한 책 I wish for you a Beautiful Life(1999) St. Paul, Minnesota Yeong & Yeong Company이다.

의 실현과 경제 문제의 해결 혹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적실한 도구로서 해외 입양을 정책적으로 선택하여 미국과 유럽의 국제 입양 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응답하고 공모한 흔적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1) 한국 사회의 내부적 가치의 실현으로서의 아동의 해외 격출

한국의 해외 입양은 혼혈 아동으로부터 출발해서 장애 아동, 기아, 고아, 빈곤 가정과 결손 가정의 아동, 미혼모의 아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아동의 해외 격출의 배후에는 단일혈통 민족주의, 정상인 이데올로기, 가부장제와 같은 가치 체계가 숨어있다.¹⁷⁾

6·25전쟁과 미군의 주둔은 남한을 구원하고 안보를 담보하는 수단이었던 반면, 이를 가능케 한 소위 ‘섹스동맹’에 기초한 미군 기지촌의 형성은 혼혈아동의 출현과 달러화 유입이라고 하는 부산물을 한국 사회에 안겨 줬다. 한국 사회는 달러화의 유입을 환영하고 혼혈아동의 출현에는 낯설어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자신 유럽 여성과 결혼하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일국일민주의’를 주창하며¹⁸⁾ 혼혈아동의 해외 입양을 뒷받침했다. 한 사회가 단일민족주의와 순혈주의에 기초해서 혼혈아동을 해외 입양을 통해서 청소했던 것이다. 필자는 우리 사회가 반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위 회개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그 때는 가난했고 또 우리가 순혈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니 혼혈 아동의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 입양을 보내는 선택은 옳았다는 주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도 반론을 펴기는 어렵다. 그러나 반성은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 ‘그 때 우리나라는 자기 사회 내부로 출생하는 혼혈 아동이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일, 즉,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 각성이 없었고 게을렀던 점에 대해서 반성한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녀야 할 관점이라는 것이다. 장애 아동의 경우도 다를 바가 없다. 장애 아동이 출현했을 때, 그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복지 체계를 충분히 발달시키는 것은 쉬운 사회적 과제가 아님은 자명하다. 그러나 해외 입양은 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체계의 발전을 위한 성찰의 기회를 일정 부분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했다. 장애 아동이라는 이름으로 높은 사회 복지 비용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저체중아와 경증 정신지체아 그리고 선천성구순개열아(언청이)를 장애아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입양 보낸 사실이 이를 드러내어 준다. 근간

17) Tobias Huebinette, 상계서. p.77

18) 이예원, 해외 입양인의 귀환과 입양인 자생 운동, 2008,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p.30

에 와서는 미혼모의 아동이 해외 입양 아동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가부장제적 남성우월주의에 젖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결국, 해외 입양은 그것이 단일민족주의(혹은 순혈주의)이든 정상인 이데올로기이든 가부장제적 남성우월주의이든 간에, 우리 사회 내부로 출현한 소위 ‘부정한(impure) 아동’을 우리 사회 외부로 격출함으로써 우리 사회 내부를 단속하고 정화(purification)하는 사회적 가치 체계 실현의 결과물이다.¹⁹⁾ 이와 같은 가치 체계가 결국은 국제 입양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공모할 수 있었던 정신적 토대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가치 체계에 대한 도전 혹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아동 복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지 않고 해외 입양을 그 해답으로 본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게으름이자 자기 사회 내부로 출현한 아동을 스스로 돌볼 성숙한 사회로서의 책임에 대한 직무 유기이다.

(2) 경제 문제 해결 혹은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서의 해외 입양

우리나라는 지난 55년간 약 20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²⁰⁾ 이는 경제적인 면에서 두 가지 차원의 함의를 지닌다. 하나는 이 아동들의 성장을 위한 사회 복지 비용을 스스로 면제받은 일이다. 정부와 우리사회가 이 아동들을 스스로 키우는 데에 들어갔어야 할 비용은 시대별로 그 소요 비용을 계산하는 정교한 사회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이들을 위한 주거 및 식생활 비용 일체(아마도 1000여 개소의 사회복지 시설, 또 별로 100 여개소)와 교육 비용(아마도 100여 개소의 초·중·고등학교)의 지출을 해외 입양을 통해서 해결을 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동의 해외 입양을 통해서 달러화가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정교한 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1988년에 아동 하나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일로 해서 유입된 달러가 5000 달러 정도인 것은 당시의 The Progressive의 기사 로트셴트(Rothschild)에 의해서 보도된 바가 있다.²¹⁾ 복지부의 통계는 1988년에 6463명을 해외로 입양 보낸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유입된 달러화는 어림잡아 3천만 달러로 추정할 수 있다. 1988년 1월의 외환보유고가

19) Tobisas Huebinette, 상계서, p.77

20) 2007년도 정부 공식 통계(국가통계포털)는 171,506명이다. 그러나 국가 공인 지정 해외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민법 체계 안에서 입양한 아동의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다. ‘뿌리의 집’에 머무는 입양인들 중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20만이라는 추산이 왕왕 언급되는 것이다.

21) Matthew Rothschild. 1988. Babies for sale, South Koreans make them, Americans buy them. The Progressive 52(1), pp.18-23.

47억 174만 7천 달러임에 비추어 보면²²⁾, 3천만 달러는 1월 외환보유고의 약 0.6%에 해당하며, 이 정도의 달러화를 국내로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1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기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정해볼 때, 이는 경제학적으로도 결코 무의미한 수치는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한국 사회는 아동의 해외 격출을 통해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 지출해야 할 사회복지 비용의 지출을 스스로 면제하고 동시에 경제 구조 내부에서 유의미한 달러화의 유입을 창출해내었다고 볼 수 있다. 간단하고 거칠게 말해서 한국은 자국의 아동을 팔아서 경제 성장을 도모한 나라라는 것이다.²³⁾ 그리고 필자를 포함하여 한반도에 남은 자들인 우리는 그들의 가족 해체와 낮은 땅에서의 고단한 삶으로 인해 마련된 번영의 열매를 먹고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해외입양인들에게 빚진 자들인 것이다.

3. 한국 내 국제 입양(해외 입양) 산업의 현실

-서구 사회 욕망의 실현의 전초기지 혹은 우리 안의 식민지-

모더니즘과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서구 사회의 욕망과 한국 사회의 성찰 결핍의 절묘한 만남과 공모는 한국 사회 내부에 해외 입양 산업의 융성을 가져 왔다. 해외 입양 기관의 설립자들은 우리 사회의 도처에서 주요인사로 여겨지며 휴머니즘의 실천자들로 각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구중심주의의 휴머니즘으로 무장하고 한국 사회 내부에 견고한 썩기형 소규모 식민지를 구축한 사람들이었고²⁴⁾ 동시에 서구 인문주의와 휴머니즘으로 세례 받은 사회복지사들을 중심한 내부의 공모자들을 거느리고 일해 왔다.²⁵⁾

오늘날에 이르러 4개 해외 입양 기관은 해외 입양 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내 입양 사업은 물론 과 미혼모 시설의 운영에까지 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서 왕성하게 소위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외 입양이 국제적으로 혹은 한국 사회 내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비난에 직면하여 국내 입양 증진

22) 한국은행 통계

23) 국제 입양을 상품 거래와 무역의 차원에서 조명하는 일은 입양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낮은 관점이 아니다. 상게서 *Outsiders Within*에 게재된 Kim Park Nelson의 논문 *Shopping for Children in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참조.

24) 일견 이와 같은 표현은 과격하게 보인다. 그러나 자기 사회 내부의 가족 해체를 야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서구 사회의 가족 형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입양 국가의 이익과 복지에 복무하는 시스템이 바로 해외입양기관의 사업의 성격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5) 이들은 자신들이 일상에서 아동과 입양부모 나아가 친모들의 곤경을 목격한다. 그래서 대체로 풍부한 인간성과 따뜻한 면모를 지닌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해외 입양을 아동의 복지를 위한 일이라는 신념에 차 있다. 미시적 차원의 덕행이 거시적 차원의 서구 사회로의 아동이동(baby lift)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맹목이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의 필요성이 다차원적으로 제기되었을 때, 이 기관들은 국내 입양의 선두주자로 나섰고 현재 국내 입양의 60%를 이 4개 해외 입양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²⁶⁾ 이 기관들은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왕성하게 국내 입양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매년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하여 정부 예산으로 이를 기념하고 있기도 하다.²⁷⁾ 그러나 왕성한 국내 입양 사업은 해외 입양 사업의 토대로서 기능하고 있는 바, 국내 입양 사업의 성과에 따라 해외 입양 아동의 숫자를 조절하는 소위 쿼터제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해외 입양 사업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입양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국내 입양은 필요한 수단일 뿐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사회복지 시스템의 현저한 발달과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가난한 가정으로부터의 아동의 획득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국내 입양에 일정한 아동을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자 입양 가능 아동의 획득에 전력을 쏟게 된다. 미혼모가 입양 가능 아동 획득의 주요 대상(리소스)이 되자, 최근 해외 입양 기관은 미혼모 보호시설을 급격히 확장하고 있다.²⁸⁾ 정부의 무지와 게으름과 철학의 부재는 비록 오래 전 일이기는 하나 입양특례법의 제정은 물론, 전혀 다른 철학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해외 입양과 국내 입양 그리고 미혼모 보호시설을 입양 기관의 손에 한꺼번에 맡김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아동복지의 본질은 물론, 가족 복지의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을 아동의 가족 내 보호를 훼손하고 방해할 수 있는 토대를 넉넉하게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해외 입양과 국내 입양 그리고 미혼모 보호는 그 본질과 철학에 있어서 전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우리 사회와 정부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기한 대로, 해외 입양은 비록 휴머니즘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서구 사회의 욕망이 관철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해외 입양을 반대하고 그 해답을 국내 입양에서 찾고자 하는 일은 일견 정당해 보인다. 자기 사회 내부에 출현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자기 사회 스스로 결머져야 한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성숙한 시민사회의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은 자기가 출현한 가족 내에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양육 받는 것이 입양 보내지는 것보다 더 우선적

26) 2008년 5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회의시 대한사회복지회 사무총장의 발언.

27) 대표적인 연예인이 윤석화와 신애라이다. 이들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와 해외 입양에 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Outsiders Within에 게재된 Jae Ran Kim의 글 Scattered Seeds-The Christian Influence on Korean adoption이 참고할 만하다.

2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47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에 있는 한상순의 토론문에 의하면 미혼모 보호 시설 30개소 중 17개소가 해외입양기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고 합당한 관점인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미혼모부자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아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양육할 기회가 먼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도, 도무지 해결책이 없는 경우에는 미혼모부자 보호의 철학에 의한 충분한 검토 끝에 미혼모부자 복지 체계의 주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아동을 국내 입양 체계로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내 입양 체계이든 해외 입양 체계이든 입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양 가능 아동 획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혼모부자 복지 체계 내부로 국내 입양이든 해외 입양이든 입양의 철학과 논리가 쳐들어와 자기 철학과 논리를 관철하는 길을 차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입양은 가족 해체의 결과를 사회 복지적으로 해결하는 삶의 방식이지, 입양이 가족 해체를 유인하는 방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입양 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자 시설에서는 임신한 미혼모가 출현했을 때, 출산 후 아동을 포기할 것을 약속하는 미혼모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가족 형성 과정을 돕는 복지가 아니라 가족 해체를 유인하는 복지이며, 이는 미혼모부자 시설이 입양을 위한 아동 획득의 수단으로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다. 실제로 2007년 입양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애란원에 입소한 미혼모의 82%가 양육을 결심하는 데 반해 나머지 기관들의 양육 결심은 37%에 머무르고 있다.²⁹⁾ 이는 입양 기관이 운영하거나 입양 기관의 개입이 용이한 미혼모자 시설에서는 미혼모자 복지의 고유한 철학 즉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한 충분한 정보와 숙려 기간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입양 기관에 의해서 가족 해체와 출산 아동에 대한 합법적인 약취가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 국제 입양과 국내 입양 그리고 미혼모자 복지의 철학적 기반

국제 입양과 국내 입양 그리고 미혼모자 복지의 철학적 기반은 상호 배타적이다. 미혼모자 복지의 철학적 기반은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적 차원에서 복지적 지원이 이루어져서 ‘입양’을 보낼 아동이 아예 출현하지 않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국내 입양은 아동의 문화적 인종적 생태체계 내부에서의 성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47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에 나타난 이미정 박사의 논문 ‘미혼모를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과 애란원 원장 한상순의 토론문 참조.

장을 도모하며 아예 ‘해외 입양’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꿈꾼다. 국제 입양은 서구의 협애한 휴머니즘에 기초하며 서구의 입양 가족의 이익에 복무한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덧붙이면 아래와 같다.

(1) 국제 입양의 철학

국제 입양은 세계적 지평에서 수행되는 서구 국가 중심의 아동복지라고 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인종과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서 가정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동은 가정의 보호 안에서 건강하게 돌봄을 받고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시설에서의 아동보호는 폐지되어야 할 과제라고 믿는다.³⁰⁾ 이 국제 입양은 일견 서구 휴머니즘을 풍부하게 담지하고 있으나, 아동이 자기가 출현할 생태체계 내부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명하지 않는다. 국제 입양 사업의 전개를 위한 아동의 획득 그 자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아동의 출생국 내에서의 보호와 성장을 위한 휴머니즘에는 복무하지 않는다. 종종 서구의 문화적 물질 토대의 우월성에 대한 서구 근대주의의 오리엔탈리즘에 기초해서 아동의 출생국과 친가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국제간의 입양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2) 국내 입양의 철학

국내 입양은 아동의 자국 내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하여금 출생의 생태체계 내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와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 성장하는 일이 야기하는 정체성의 혼란과 훼손을 경감할 수 있다고 본다. 서구 국가의 시혜적 휴머니즘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에서 출생하는 아동을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책임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초하는 복지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입양 가족은 종종 입양을 통하여 자신들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연민과 휴머니즘을 격려하며 암암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이를 높은 덕성으로 간주하여 국내 입양을 추동하려는 열정을 가진다. 그러나 국내 입양 역시 아동의 획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동의 출생 가족 내의 보호에 대해서 커다란 지지를 표명하지 않는다. 미혼모가 양육을 결정하는 일에 대한 후원과 지지 내지는 미혼모의 양육 환경에 따르는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소극적이며, 입양을 홍보하고 그 덕성을 기리는 일에는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친생

30) 아동의 시설 보호의 보호막으로부터 아동을 획득할 과제를 안고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을 보냄으로서 서구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해외 입양 기관들의 전형적인 논리이자 주장이다.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입양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가 쉽다.³¹⁾

(3) 미혼모자의 아동 양육과 자립 지원의 철학

미혼모자의 아동 양육과 자립 지원의 철학을 미혼모자 복지라고 편의상 줄여서 말하고 싶다. 미혼모자 복지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아동이 친생부모의 돌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복지체계이다. 국제 입양이나 국내 입양은 아동을 보다 쉽게 분리가 가능한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미혼모자 복지는 아동을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바라본다. 미혼모자 체계 안으로 태어난 아동의 복지만이 아닌 미혼모 나아가 미혼부의 복지까지 고려한다. 미혼모의 아동의 포기가 일생 동안 겪게 될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동시에 미혼모자가 살아갈 미래의 장애들인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이 야기하게 될 난관까지 고려한다. 그러나 이 미혼모 복지가 타협 불가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게 될 때에는 미혼모부자의 체계 안에서 아동이 학대 받거나 보호의 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자 복지는 국제 입양 혹은 국내 입양 복지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복지이며, 국제 입양과 국내 입양의 ‘덕행’에 의한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체계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5.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 입양(해외 입양) 산업으로 하여금 국내 입양 사업과 미혼모자 복지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결정적인 일이다. 철학과 목표와 이상이 상충하는 사업을 하나의 사업 주체가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해외 입양 기관이 국내 입양 사업과 미혼모자 복지 사업에 두루 뛰어 들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정부와 학계와 시민 사회가 충분하고도 진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자의 출현 단계에서부터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정교하게 갖추어 놓고 가족 해체를 암암리에 유인 강제함으로써 아동을 접수 혹은 획득(In Take)하고 있는 해외 입양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입양 사업과 국내 입양 사업과 미혼모자 복지 사업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국가 권력이 개입해

31) 한국입양홍보회(MPAK)는 매우 각성된 국내입양운동단체이며 한국사회의 국내입양운동을 선진적으로 견인한 공헌이 있으나 한 편으로는 미혼모부자 복지 체계의 획기적 발전이 국내입양운동보다 더 우선적인 사회적 과제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식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야 한다.

또한 정부는 참여 정부 시절 비등한 해외 입양에 대한 비판에 대한 해답으로 국내 입양을 선택한 일에 대해서 정책적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 해외 입양에 대한 답이 국내 입양에 있지 않고 미혼모자 복지 체계의 획기적 발전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오답은 언제나 정답의 출현을 지연시킨다. 이런 점에서 해외 입양과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한 해답 중의 하나로 ‘입양의 날’을 제정하고 국내입양장려를 미혼모자 복지체계의 획기적 개선보다 우선적으로 펼친 참여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미혼모자 복지 체계에 두고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며 모델을 제시하고 지도와 감독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미혼모자 복지 체계 안에서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미혼모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동이 자라갈 환경인 사회의 편견을 깨뜨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도 재원을 획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연예인들이 나서서 ‘입양’을 위한 홍보대사 노릇을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이 형성되도록 하고 ‘미혼모자 가정’의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고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나서도록 견인해내어야 한다. TV 광고나 대형 입간판의 설치를 통해서 미혼모자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견인해내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복지과와 가족복지과가 각각 다른 국에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숙고가 필요하며 통합 내지는 사업의 공동 수행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붕괴와 해체의 위기에 처한 가족을 향한 복지의 강화를 통해 아동복지의 수요 그 자체를 줄여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해외 입양과 관련한 국제 조약인 ‘헤이그 협약’에 가입해야 하며 그 조약의 비준에 즈음하여 외국인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입양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민법 조항을 고쳐야 하며, 해외 입양을 변명 없이 최소화하거나 그 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단계으로 진입하는 일에 진력해야 한다. 사실, 해외 입양은 물론 국내 입양까지도 보낼 아이가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즉, 미혼모자 복지의 차원에서 아동 복지의 문제 해결을 종결지어야 한다.

‘입양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대한 꿈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국내 입양)이나 ‘피보다 진한 사랑’(국제 입양)에 우선하는 꿈이 되어야 한다.